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의 사례와 그 의의

— 한국가사문학관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김 미 선*

차 례

1. 머리말
2.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의 사례
3.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의 의의
4.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의의를 밝히,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 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2023~2024년에 한국가사문학관의 요청으로 진행한 초등학생 대상 고전문학 수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수업은 가사문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가사문학이 낯선 초등학생인 것을 고려해 '최소한의 핵심'만을 가르쳤다. 가요, 동요, 애니메이션 등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자 하였으며, 배운 것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퀴즈를 활용하였다. 또한 작품 짓기를 진행하였는데, 이때에는 '1) 소리 내어 작품 읽으며 특징 익히기 2) 기존 작품의 빈 칸 채우기 3) 나만의 작품 짓기 4) 나의 작품을 부채에 쓰고 그림으로 꾸미기'라는 4단계를 거쳤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의 의의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은 고전문학을 어렵게 여기는 학생들이 고전문학과 친해지게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은 고전문학과 관련된 지역의 인물·장소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 고전문학, 가사문학, 교육, 수업 사례, 초등학생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

1. 머리말

고전문학에는 우리 선조들의 삶과 문화가 담겨 있다. 고전문학 작품을 읽으며 당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당시의 심정을 느낄 수 있으며, 문학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박연호는 고전문학 교육의 목적을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문학의 전통 및 문학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¹⁾ 고전문학 연구자들은 고전문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고전문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아를 성찰하고 소통 능력을 키우며 지식을 익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생들 또한 그러할까?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치면서 고전문학을 꺼리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된다. 국어국문학 전공 학생들조차도 고전문학은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작품을 읽기도 전에 싫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과거의 문화를 담고 있고 용어도 낯설어, 현대문학에 비해 감상하는 데에 시간을 더 들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차근차근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당대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함께 작품을 읽다보면, 학생들이 고전문학을 즐겁게 감상하는 것도 보게 된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고전문학을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고전문학 연구자들은 연구자이면서 교육자이다. 고전문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연구자가 실행해보고 효과가 좋았던 교육 방법을 다른 연구자나 교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연구자의 사례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 효과적인 고전문학 수업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학의 정규 과정 수업을 주로 진행하지만, 2023~2024년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고전문학을 수업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가사문학관의 요청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초등학교 정규 수업이 아닌 특강 형식으로 진행한 수업이었다. 대학생들도 꺼려하는 고전문학을 초등학교생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

1) 박연호, 「고전문학의 교육 목적과 가사문학 교육 방안」, 『한국시가연구』 38, 한국시가학회, 2015, 145쪽.

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수업 설계 때 많은 고민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의의를 밝혀,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 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 중 고전문학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지만,²⁾ 정규 수업 외 고전문학 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정규 수업 외 고전문학 교육에 대해서는 2019년에 6주간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고전문학감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지원·류연석·고정희의 공동연구³⁾ 정도만이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는 고전문학 경험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살핀 후 신체활동을 통한 고전문학 경험교육의 실재를 제시하였다.⁴⁾ 초등학교 교사가 아닌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전공자의 경우 논술 교육의 일환이나 특강 형식으로 초등학생에게 고전문학을 교육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초등교사 뿐만 아니라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전공자의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2) 김창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상 고전문학 고찰 - 특히 고시조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986, 61~80쪽; 변숙자, 「2015 개정 초·중등 국어 및 문학 교과서의 신화 제재 수용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5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3, 65~98쪽; 염은열, 「고전문학교육과 '전통' - 초등교육에서 '과거의 문학'이 지닌 의미」, 『초등교육연구』 11, 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1, 45~61쪽; 이상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국어 교과서 연계성 연구 - 고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임화섭, 「초등학교 국어과 고전 문학 작품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정우영, 「시조의 장르 변용 교육 연구 - 초등 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16, 국어교과교육학회, 2009, 65~88쪽; 정혜승,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전통문화 반영 양상」, 『교육문화연구』 24(6),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395~412쪽; 조성윤, 「초·중등 간 연계성 있는 고전 서사 교육을 위한 교과서 검토와 방법 제언」, 『국어문학』 72, 국어문화회, 2019, 633~663쪽; 황택주, 「국어 사용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고전문학 지도 방안 - 제7차 교육과정 5,6학년 '읽기'를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등.
- 3) 이지원·류연석·고정희, 「신체활동을 통한 고전문학 경험 교육 연구 -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2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9, 97~140쪽.
- 4) 이 논문에서 고전시가, 고전소설로 나누어 고전문학 경험 방법을 3가지씩 제시하였다. 고전시가는 '시조의 4음보에 맞추어 걸기', '상상화 그리기', '정서의 구체적인 형상 만들기 - 고무 찰흙으로 감정 구슬 만들기'이고, 고전소설은 '용궁을 소개하는 팸플릿 만들기', '모의 재판하기', '소설을 연극으로 전환하기'이다.

2.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의 사례

한국가사문학관은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에 위치해 있다. 한국가사문학관 누리집의 설명에 따르면,⁵⁾ 이서(李緒, 1482~?)의 <낙지가>, 송순(宋純, 1493~1583)의 <면양정가>, 정철(鄭澈, 1536~1593)의 <성산별곡>·<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 등 18편의 가사가 전승되어, 담양군은 가사문학의 산실로 불린다. 그리하여 담양군에서 가사문학 관련 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현대적 계승·발전을 위해 1995년부터 가사문학관 건립을 추진, 2000년 10월에 완공하였다.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은 가사문학 관련 유물 보관 및 전시, 한국가사문학DB 구축, 가사문학 대상 공모, 청소년 가사시 랩 페스티벌 개최,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가사문학관에서는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찾아가는 가사문학’·‘지역민과 함께하는 가사문학’이 있다. 이는 신청한 학교나 기관에 찾아가 가사문학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필자는 2023년 5월에 한국가사문학관의 의뢰를 받아 담양군 소재 A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같은 해 6~7월과 2024년 5월에 A초등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수업 개요

구분	시기	회차	수업 시간	대상 학생 ⁶⁾	수업 내용
1차	2023년 5월	1회	40분	3~6학년	1) 가사문학 이해하기 2) 대표적인 가사문학 작품 알기 3) 대표적인 가사문학 작가 알기 4) 담양에 가사문학면이 있는 이유
2차	2023년 6~7월	1회	80분	1~2학년	1) 가사문학 이해하기 2) 가사 짓는 방법 익히기
			80분	3~4학년	
			80분	5~6학년	

5) 한국가사문학관(<http://www.gasa.go.kr/>). 가사문학관의 현재 활동에 대해서도 누리집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6) A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2~10명인 소규모 학교였기 때문에, 두 개 이상 학년을 함께 수업하여도 학생수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다.

구분	시기	회차	수업 시간	대상 학생기	수업 내용
2차	2023년 6~7월	2회	80분	1~2학년	1) 가사문학 이해하기(복습) 2) 가사 짓기 3) 부채 꾸미기
			80분	3~6학년	
3차	2024년 5월	1회	80분	3~4학년	1) 가사문학 이해하기 2) 시조문학 이해하기 3) 시조와 가사 빈칸 채우기
			80분	5~6학년	
		2회	80분	3~4학년	1) 가사문학 이해하기(복습) 2) 시조문학 이해하기(복습) 3) 담양의 가사문학 읽기 4) 시조와 가사 짓기
			80분	5~6학년	
		3회	80분	3~4학년	1) 가사 동화 읽기 2) 시조와 가사 완성하여 부채에 쓰기
			80분	5~6학년	

1~2차 수업 때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횟수를 신청 기관과 한국가사문학관이 조율하였다. 1차 때는 3~6학년을 대상으로 1교시 40분 동안 가사문학이 무엇 인지를 교육하기를 위하여 그에 맞게 수업 내용을 설계하였다. 2차 때는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사문학 부분 수업을 한국가사문학관에 요청한 것으로, 1~2학년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학생들이 창작한 작품을 자료집으로 만드는 것까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업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학년별 4교시 총 160분 수업 시간에 가사 짓기까지 진행하였다. 3차 수업 때는 초등학교와 한국가사문학관, 필자가 같이 일정과 횟수를 조정하였다. 1차와 2차 수업 때 학생들과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긍정적인 수업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필자가 수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학생들에게 가사문학을 가르친다는 것 외에 다른 요구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3회의 수업을 필자가 자유롭게 설계하였다.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A초등학교에서 가사문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필자의 수업은 고전문학 중 ‘가사문학’에

7) A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2~10명인 소규모 학교였기 때문에, 두 개 이상 학년을 함께 수업하여도 학생수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다.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2차 수업 후 학교에서 발간한 자료집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짧은 감상이 실려 있었는데, 적은 수이긴 하지만 ‘시조를 재미있게 배웠다’라고 쓴 학생들이 있었다. 이는 수업을 들었음에도 ‘가사’와 ‘시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수업 때는 가사와 시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고전문학 연구자가 초등학생에게 고전문학을 교육하는 기회는 많지 않다. 더구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가사문학을 교육하는 것은 더욱 특별하다 할 수 있다. 이제 초등학생 고전문학 수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1. 문학 지식 설명과 퀴즈의 교차

가사문학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고전문학 중 시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 일찍부터 학생들이 배우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사문학을 접하는 일은 드물다.⁸⁾ A초등학교에서 가사문학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학교의 위치와 관계가 깊다. A초등학교는 담양군 가사문학면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이 있는 지역이 왜 가사문학면인지, 가사문학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가사문학을 교육하고자 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이름도 생소한 ‘가사문학’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에서는 필자에게 가사문학을 가르치되 ‘쉽게’ 수업을 해달라고 하였고, 이것은 필자가 주안점을 둔 부분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수업에서는 가사문학에 대한 ‘최소한의 핵심만’ 가르치고, ‘재미있게’ 수업하고, 수업이 끝나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문학에 대한 개론서에서 가사문학의 개념을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시조와 함께 조선조 문학의 쌍벽으로서 일제시대까지 면면히 창작, 향유되어온 우

8)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고전문학 수록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지를 참조하였다.

정한기·김용재, 「시조 교육의 양상과 과제 -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제재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72, 국어문학회, 2019, 597~632쪽 ; 조희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국어교과서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문학교육학』 68,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227~260쪽 ; 황윤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문학 교과서의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연구」, 『문학교육학』 666,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171~221쪽.

리 고유의 문학 장르”로, “3·4조 혹은 4·4조가 우세한 4음보격 무제한 연속체로서 일정한 율격을 지닌 다소 개방된 시가”라고 하였다.⁹⁾ 이외에도 가사문학에 대한 설명은 많지만, 초등학생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을 ‘1) 시, 노래 가사 2) 한 줄이 4음보(4덩어리) 3) 길이가 자유로움 4) 고려말에 발생 5) 조선시대 대표적 문학 6) 우리나라 고유의 문학’이라는 6가지로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4음보를 기억하길 원하지만 ‘음보’라는 용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덩어리’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익숙한 가요와 동요에서 4음보인 것을 예시로 보여주었다.

〈표 2〉 수업에서 제시한 4음보 예시

순번	구분	제목	4음보 예시
1	가요	세븐틴의 〈손오공〉	마치 / 된 것 / 같아 / 손오공
2	가요	아이브의 〈Kitsch〉	우리만의 / 자유로운 / nineteen's / kitsch 지금까지 / 한적 없는 / custom / fit
3	가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Sugar Rush Ride〉	삼켜버려 / the / sugar / rush 밤하늘에 / 향연 / Sweet / desire
4	가요	뉴진스의 〈Ditto〉	홀쩍 / 커버렸어 / 함께한 / 기억처럼
5	동요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 꼬마야 / 땅을 / 짚어라 꼬마야 / 꼬마야 / 뒤를 / 돌아라 꼬마야 / 꼬마야 / 만세를 / 불러라 꼬마야 / 꼬마야 / 잘 / 가거라
6	동요	〈나비아〉	나비아 / 나비아 / 이리 날아 / 오너라 노랑나비 / 흰 나비 / 춤을 추며 / 오너라 봄바람에 / 꽃잎도 / 방긋방긋 / 웃으며 참새도 / 짹짹 / 노래 하며 / 춤춘다
7	가사	정철의 〈관동별곡〉	강호에 / 병이 깊어 / 죽림에 / 누웠더니 관동 / 팔백 리에 / 방백을 / 맡기시니

수업을 준비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를 알아보았고, 1차 수업을 했던 2023년 5월에 남자 아이돌인 ‘세븐틴’, 여자 아이돌인 ‘아이브’의 노래가 인기 있었다. 이들의 노래에서 4음보인 부분을 찾아 1차 수업 때 1

9) 김광순 외, 『국문학개론』, 새문사, 2012, 183~186쪽.

번과 2번 부분을 예시로 제공하였다.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던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자 밝은 표정을 지었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 가요의 예시를 제시한 후 7번의 <관동별곡> 예시를 보여주며 4음보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가요의 4음보 예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2~3차 수업 때 다른 예시를 더 찾아서 제시하였다.¹⁰⁾ 3번과 4번은 다른 인기 아이돌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뉴진스’의 노래에서 4음보를 찾아 제시한 것이다.

1차 수업 때는 1~2학년이 없었지만, 2차 수업 때는 1~2학년에게도 가사문학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4음보인 동요를 같이 제시하였다. 위 5~6번 동요는 4음보를 익히기에 좋은 예시였으므로, 다른 학년에게도 2~3차 수업 때 제시하였다. 1~2학년, 3~4학년에게는 각 음보별 율동을 만들어, 동요를 따라 부르며 율동을 하게 하였다.¹¹⁾ 5~6학년은 율동을 싫어했기 때문에 노래만 함께 부르며 4음보를 익히게 하였다.

또한 A초등학교가 위치한 담양지역과 관련하여, 담양의 가사 작품이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사 작품인 정철의 <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 송순의 <면앙정가>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1차 수업 때 가사문학의 형식을 보여주기 위해 <관동별곡> 전체를 제시하긴 했지만, 예시로서 1~2행만 읽고, 다른 부분은 한 행이 4음보인 것과 길이가 자유로우면서 길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에서만 설명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수업을 거쳐 학생들이 가사문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생겼다고 판단하였고 <관동별곡>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3차 수업 때는 EBS에서 만든 <관동별곡>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필자의 설명을 덧붙였다.¹²⁾ EBS의 애니메이션은 6분 2초, 5분 49초의 짧은 동영상 2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동영상 길이가 길

10) 2023년 2차 수업 후 1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학생들이 필자를 보고 ‘마치 / 된 것 / 같아 / 손오공’이라고 노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에서 4음보를 찾아 알려줄 정도로 가요 속 4음보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다.

11) 율동은 ‘1) 두 손으로 양쪽 허벅지 치기 2) 두 손으로 배 앞에서 손뼉치기 3) 두 손으로 양쪽 어깨 가볍게 치기 4) 두 손으로 머리 위쪽에 토끼 귀 만들기’로 진행하였다. 아래에서 위로 4가지 동작을 차례대로 하며 4음보를 즐겁게 익히게 하였다.

12) EBSi, 「한양에서부터 금강산까지 1 관동별곡(1) 1 10 CUT 고전시가」(<https://www.youtube.com/watch?v=AaUMvcZZnSs>) ; EBSi, 「한양에서부터 금강산까지 1 관동별곡(2) 1 10 CUT 고전시가」(<https://www.youtube.com/watch?v=WcmoFlCoo-M>).

면 학생들이 지루해할 수 있는데 5~6분의 짧은 영상이라 초등학생들이 보기에 도 적합하였다.

가요, 동요, 애니메이션 등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자 하였다면, 배운 것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퀴즈를 활용하였다. 1차 수업 때 마지막에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제시한 결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퀴즈를 풀겠다고 손을 든 학생들이 많아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이긴 사람 1명이 답을 말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을 놀이처럼 여겼다. 2차 수업 때는 퀴즈가 있냐고 미리 물은 후 퀴즈에 나올 문제를 예상하면서 필기를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2~3차 수업 때도 퀴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표 3〉 수업에서 제시한 퀴즈 예시

순번	질문	정답
1	가사문학은 몇 덩어리로 읽을까요? (몇 음보일까요?)	4덩어리(4음보)
2	가사문학은 언제 발생했을까요?	고려말
3	가사문학은 몇 줄로 써야 할까요? 1) 3줄 2) 10줄 3) 100줄 4) 자유로움	4) 자유로움
4	빈 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가사의 친구인 문학은 무엇일까요?) ()()와 가사	시조
5	담양의 유명한 가사문학 작가 이름은 무엇일까요?	송강 정철, 면앙정 송순
6	<관동별곡>은 어느 곳 여행을 노래했을까요?	금강산, 관동팔경(동해)
7	현우가 주인공을 뭐라고 놀렸나요?	멀치 대가리, 멀치
8	선생님은 멀치 머리 안에 무엇이 들어 있다고 했나요?	블랙박스

위는 수업 때 냈던 퀴즈의 예시이다. 1~6번은 기초 지식을 알게 하는 문제로, 이러한 문제를 1차 때는 수업의 마지막에 냈었다. 2차 때부터는 수업 첫

부분에서도 퀴즈를 내어 기존에 배운 것을 복습하였고, 수업 중간에도 환기를 위해 퀴즈를 내었다. 7~8번은 3차의 마지막 수업 때 낸 퀴즈의 일부로, 수업 시간에 읽은 가사 동화 내용을 퀴즈로 낸 것이다. 한국가사문학관에서 ‘한국 가사 동화 100선’을 출판하고 있는데, 그중 한 권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하였다.¹³⁾ 5편의 이야기 중 3편을 읽었으며, 각 편을 읽고 나서 동화 내용과 관련한 퀴즈를 내었다. 동화를 읽기 전부터 학생들은 퀴즈가 있다고 물어보았고, 동화 내용에 더욱 집중하고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2. 작품 짓기와 부채 꾸미기

1차 때는 40분만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가사 짓기를 진행하지 않았다. 2차 때는 학교에서 자료집 발간을 위한 가사 짓기를 요청하여 가사 짓기를 수업 내용에 포함시켰다. 가사를 직접 지어보면 작품의 특징이 온전히 체득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3차 때에도 가사 짓기를 진행하였다. 3차 때에는 가사문학과 함께 시조문학에 대해서도 수업했기 때문에 시조와 가사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짓도록 하였다. 다만 2차 때에는 자료집 발간을 위해 작품을 반드시 완성해야 했지만, 3차 때에는 그러한 부담 없이 미완성이라도 4음보로 지어 보는 경험을 하게 하였다. 또 시조가 3행이고 가사는 그 보다 길게 쓴다는 것을 작품을 지으며 기억하게 하는 데에 의미를 두었다.

가사문학 자체를 처음 접해 본 학생들에게 가사를 짓는 것에 거부감을 없애고, 단기간에 가사 작품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1) 소리 내어 작품 읽으며 특징 익히기 2) 기존 작품의 빈 칸 채우기 3) 나만의 작품 짓기 4) 나의 작품을 부채에 쓰고 그림으로 꾸미기’라는 4단계로 진행하였다. 3차 때는 시조와 가사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짓게 하였으며 그때에도 같은 단계를 거쳤다.

고정희는 장르 지식을 활용한 가사 교육 방안을 논하면서 ‘리듬감을 살려 텍스트 읽기’를 언급하였다. 그는 가사 교육의 목적은 오늘날 학습자들이 가사를

13) 2024년 3차 수업 때 읽은 가사 동화는 윤미경 글·성혜진 그림의 『펼치 블랙박스』(고요아침, 2023)이다.

배우는 동안 그 장르가 의도한 즐거움과 흥취를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텍스트의 낭독’은 가사를 가사로서 경험하고, 가사의 장르가 의도한 즐거움을 향유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하였다.¹⁴⁾ 필자 또한 눈으로 고요히 읽는 장르가 아닌 소리 내어 읽고 귀로 들으며 즐기는 가사의 특징을, 학생들이 소리 내어 읽으며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였다. 이때 조선시대 가사 작품은 아무리 현대어로 번역된 것이라 해도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다. 1차 때는 정철의 <관동별곡>을 잠깐 읽었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2차 때는 초등학생이 지은 가사 작품을 예시로 제시하여 함께 소리 내어 읽도록 하였다.

〈표 4〉 초등학생 가사 작품 예시

제목	내용
비	비가 / 내린다 / 주르륵 / 주르륵 빗소리가 / 멈추질 / 앓고 / 들린다 주르륵 / 주르륵 / 씹아아 / 씹아아 비가 / 여러 가지 / 소리로 / 들린다 어떤 / 때에는 / 씹아아 / 씹아아 어떤 / 때에는 / 주르륵 / 주르륵 어떤 / 날엔 / 푹 / 푹 어떤 / 날엔 / 푹푹 / 푹 이렇게 / 여러 가지 / 소리들이 / 난다
엄마	엄마는 / 잔소리 / 쟁이 / 이네 맨날 일찍 / 일어나라 / 잔소리 / 하네 빨리 / 숙제 해라 / 잔소리 / 하네 하지만 / 좋은 / 잔소리도 / 있네 우산 / 챙겨 가라 / 잔소리 / 하네 비가 / 내려 / 잔소리가 / 좋았네 빨리 / 먹지 마라 / 잔소리 / 하네 빨리 먹으니 / 체해서 / 잔소리 / 좋네 잔소리는 / 좋기도 / 안 좋기도 / 하네

14) 고정희, 「문학교육에서 장르 지식의 위상과 활용 방안 - 가사 장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8, 380쪽.

〈표 4〉는 2차 수업 때 제시한 초등학생의 가사 작품이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 수업을 준비하면서 미리 2명의 초등학생에게 가사문학 수업을 하고, 가사 작품을 짓게 하였다. 가사의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롭게 읽었고, 자신과 같은 초등학생이 이렇게 짓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가졌다. 그리고 다함께 음보에 맞춰 소리 내어 읽으며 가사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위에서 제시한 작품 외에도 〈햄스터〉, 〈나의 가족, 개〉, 〈수박〉과 같은 쉽고 재미있는 내용의 가사 작품을 제시하였다. 3차 때에는 가사와 함께 학생 시조도 제시하여 소리 내어 읽었다. 학생 시조는 백일장도 많고 공개된 작품도 많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

가사 작품을 소리 내어 읽고 난 후 이미 있는 작품의 빈 칸을 채우는 활동을 하였다. 아래는 빈 칸 채우기의 예시로, 〈표 4〉에서 제시한 작품의 일부를 비워 놓고 학생들에게 채우게 한 것이다. 〈비〉의 경우 빗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하게 하였고, 〈엄마〉의 경우 ‘잔소리쟁이’로 제목을 바꾸어 ‘엄마’가 아닌 다양한 사람을 표현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아빠’, ‘친구’, ‘동생’ 등을 넣으며 다양한 잔소리를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4음보를 완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덜 느끼게 되었다.

〈표 5〉 빈 칸 채우기 예시

비			
비가	여러 가지	소리로	들린다
어떤	때에는		
어떤	때에는		
잔소리쟁이			
	잔소리	쟁이	이네
		잔소리	하네
		잔소리	하네

‘소리 내어 작품 읽으며 특징 익히기’와 ‘기존 작품의 빈 칸 채우기’를 한 후 ‘나만의 작품 짓기’를 진행하였다. 다음의 〈표 6〉처럼 한 줄이 네 칸으로 된 양

식을 주어, 한 칸을 1음보가 되게 짓게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음보를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가사문학관에서는 가사문학 대상을 공모하면서 ‘45행 이상 120행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가사는 장편일 때 그 장르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만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는 자유롭게 하였다. 다만 3행인 시조와의 차별성을 위해 반드시 4행 이상 쓰게 하였다. 3차 때는 시조와 가사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짓게 하였으며, 시조의 경우 3행으로 이루어진 양식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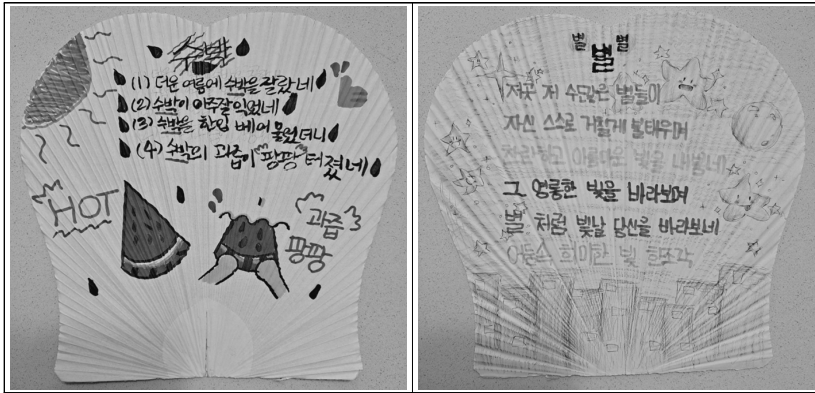
〈표 6〉 가사 짓기 양식

제목 :			

가사 짓기를 한 후 마지막 단계로 ‘나의 작품을 부채에 쓰고 그림으로 꾸미기’를 진행하였다. 이는 가사문학 교육 전체의 마지막 활동이기도 했다. 이지원·류연석·고정희는 신체활동을 통한 고전문학 경험 교육을 연구하면서, “신체 활동을 통해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 비중이 큰 아동 및 초등학습자들에게 신체 활동은 단순히 감각의 자극 내지는 인지의 보조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체활동이야말로 그들이 외부세계를 자신의 자장 속으로 받아 이해하는 핵심매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부채에 본인이 지은 작품을 쓰고 그림

15) 이지원·류연석·고정희, 「신체활동을 통한 고전문학 경험 교육 연구 -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2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9, 106쪽.

으로 꾸미는 활동도 신체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지은 작품이 시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림 1〉 부채 꾸미기 예시

위와 같은 예시를 먼저 보여주면서 마음껏 꾸밀 수 있도록 하였고, 고학년의 경우 붓펜을 이용해 붓글씨의 느낌으로 쓸 수 있게 하였다. 학생들은 가사 짓는 것을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완성한 가사를 부채에 쓰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였다. 부채를 꾸미는 것 자체도 재미있지만, 부채 꾸미기를 통해 선조들이 부채에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 사용하였던 문화도 가르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사문학 교육은 끝나지만 그 부채가 남아 학생들이 가사문학을 기억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

3.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의 의의

3.1. 고전문학과 친해지기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은 고전문학을 어렵게 여기는 학생들이 고전문학과 친해지게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고전문학을 읽다보면 당대의 삶과 문화를 알아갈 수 있고, 화자나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문학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시조·가사와 같은 고전시가는 소리 내어 읽으면 랩이나 노래를 하는 듯한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그 고유한 장점이 있지만 생소한 옛날 용어가 쓰이고, 현대에 자주 접하지 못한 것이라서 꺼리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깊이 있게 읽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고전문학을 멀리하는 경우가 생긴다.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은 고전문학을 어렵게 여기는 학생들이 고전문학과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가사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쉽게 알려주셔서 이해할 수 있었다. - 학생A
 가사 짓기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해보니 즐거웠어요. - 학생B
 가사문학을 배우고 시조를 배우는 것이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 학생C
 가사문학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가서 즐거웠어요. - 학생D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사 짓기 수업을 했더니 정말 재미있었다! - 학생E
 퀴즈를 통해 가사문학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게 가장 재미있었다! - 학생F
 가사를 지어보니 뿌듯하고 좋았어요. - 학생G

위는 2차 수업 후 학교에서 발간한 자료집에 담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감상 중 일부이다. 학생A처럼 학생들은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수업을 듣게 되었고, 학생B처럼 가사 짓기를 어렵게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며 학생C·학생D와 같이 흥미롭고, 즐겁게 느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긍정적으로 가사를 생각하게 된 원인은 학생E와 학생F에게서 찾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퀴즈’를 통해 낯설던 가사문학을 재미있게 배우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가사 짓기까지 마무리하면서 학생G와 같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초등학교 학생 대부분은 2023년 1차 수업 때 가사문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수업을 들었으나, 2024년 3차 수업 때는 가사문학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서 더 밝은 표정으로 수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사문학이 낯설지 않고 친근해졌기 때문이었다. 1년 후에 만났지만 학생들은 4음보를 기억하고 있었고, ‘정철’, ‘관동별곡’이라는 명칭을 낯설지 않아 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되어 교과서에서 가사문학을 다시 접할 때, 친근한 것이기에 훨씬 편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문학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다. 고등학교 국어·문학 교과서에 실린 고전

시가에는 가사·경기체가·고대가요·고려가요·민요·시조·한시·항가가 있고, 고전산문에는 고전소설·민속극·서사무가·설화·속담·판소리·한글산문·한문산문이 있다.¹⁶⁾ 고전시가 중에서 가사·경기체가·고대가요·한시, 고전산문 중에서 민속극·판소리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다.¹⁷⁾ 이러한 고전문학 작품은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학생들은 낯선 장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교 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미 이 장르와 친근해져 있다면, 고전문학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상태로 작품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3.2. 지역의 인물·장소에 관심 갖기

초등학교 고전문학 교육은 고전문학과 관련된 지역의 인물·장소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는 오랜 시간 사람들이 살아왔고,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있다. 또한 그 사람들과 관련한 장소가 남아 현대에 사람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가 되기도 한다. 뛰어난 고전문학 작품을 남긴 인물이 있고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보존되어 있는데, 알지 못해서 지나치는 경우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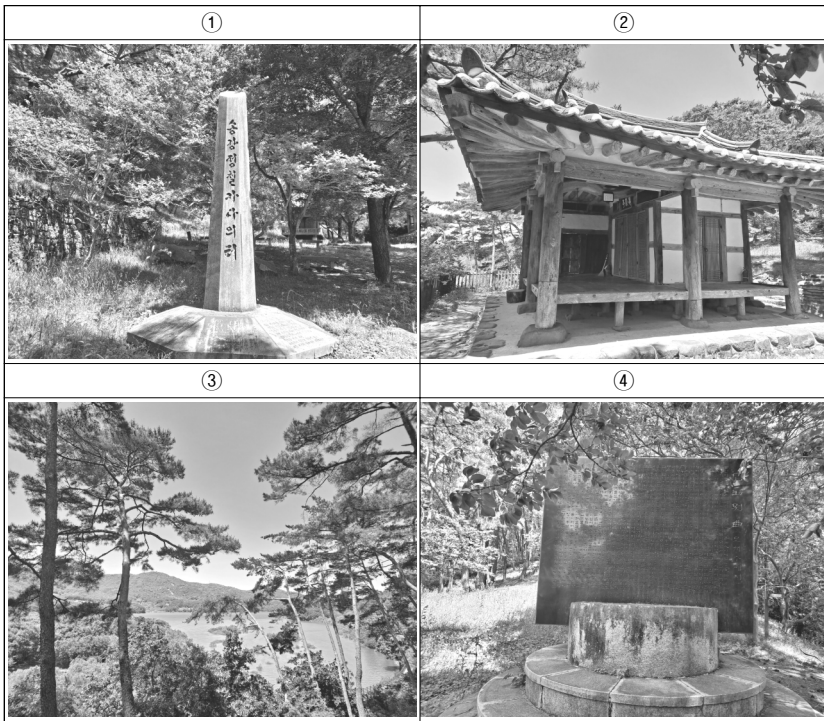
백순철은 ‘가사창작의 문학행위를 통해서 가사의 역사성과 지역성 등이 자연스럽게 터득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¹⁸⁾ 담양의 경우 송강 정철, 면양정 송순 등이 머무르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가사문학을 남겼고,¹⁹⁾ 송강정, 식영정, 면양정 등 그들이 가사문학을 비롯한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한 누정이 남아 있다. 담양군에 위치한 A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이미 이러한 누정을 자주 접했기 때문에, 더욱 친근하게 자신이 사는 지역의 가사문학 관련 인물과 장소를 배울 수 있다.

16) 황윤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문학 교과서의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연구」, 『문학교육학』 666,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178~213쪽 참조.

17) 조희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문학교육학』 68,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235~245쪽 참조.

18) 백순철, 「가사문학 교육의 방법론적 전망 - 지역성과 젠더를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39,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142쪽.

19) 송강 정철은 담양과 다섯 번의 인연을 맺었고, 4편의 대표적인 가사를 남겼다. 이에 대해서는 최한선의 논문 「송강가사의 문화 콘텐츠화 방향」(『한국시가문화연구』 33, 한국시가문화학회, 2014, 351~358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림 2〉 담양의 식영정 사진

위의 사진은 송강 정철이 문인들과 교유한 식영정으로, 이곳에서 가사〈성산별곡〉을 지었다. ①은 식영정 아래쪽에 있는 ‘송강 정철 가사의 터’ 표지석이고, ②는 식영정, ③은 식영정에서 본 광주호, ④는 식영정 바로 뒤에 있는 ‘성산별곡 시비’이다. A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위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이곳을 알고 있었고, 직접 가 본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철’이 ‘가사문학’을 지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²⁰⁾ 표지석, 시비를 보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가사문학 교육을 통해 그 역사와 의미를 알게 할 수 있었다.

전국의 곳곳에는 다양한 고전문학의 자취가 있다. 예컨대, 강진에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유배되어 머물렀던 다산초당과 그곳

20) 식영정과 관련하여서는 가사문학 외에도 한시 작품〈식영정 20영〉이 유명하며, 김미선은 이 한시를 문화영재 교육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김미선, 『호남기록문화유산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 『용봉인문논총』 45,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18~24쪽)

에서 남긴 한시, 편지 등이 있으며, 광주에는 임진왜란 의병장 김덕령(金德齡, 1567~1596) 관련한 설화가 있고 김덕령의 영정과 교지를 봉안한 충장사, 김덕령의 충을 기리는 비각이 있는 충효리가 있다. 또 영광에는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실기 『간양록』을 남긴 강항을 배향한 내산서원이 있고, 해남에는 조선시대 대표적 시조 <어부사시사>를 남긴 윤선도(尹善道, 1587~1671) 가문의 고택 녹우당이 있다. 가사, 설화, 시조, 실기, 편지, 한시 등 다양한 고전문학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지역의 인물·장소에 담긴 의미를 알고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고전문학에는 과거의 문화가 담겨 있고 낯선 용어가 사용되어, 고전문학을 어렵고 고리타분하다고 여겨 꺼리는 학생들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고전문학 교육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의의를 밝혀, 초등학교 고전문학 교육 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초등학교 고전문학 수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필자는 2023~2024년 한국가사문학관의 의뢰를 받아 담양군 소재 A초등학교에서 고전문학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가사문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가사문학이 낯선 초등학교생인 것을 고려해 가사문학에 대한 ‘최소한의 핵심만’ 가르치고, ‘재미있게’ 수업하고, 수업이 끝나도 ‘기억하게’ 하고자 하였다. 가요·동요를 활용해 4음보를 설명하고,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관동별곡>을 설명하는 등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자 하였으며, 배운 것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퀴즈를 활용하였다.

또한 작품 짓기를 진행하였는데, 이때에는 ‘1) 소리 내어 작품 읽으며 특징 익히기 2) 기존 작품의 빈 칸 채우기 3) 나만의 작품 짓기 4) 나의 작품을 부채에 쓰고 그림으로 꾸미기’라는 4단계를 거쳤다. 처음에 다른 초등학교생의 가사 작품을 소리 내어 읽게 하였는데, 가사의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롭게 읽었고, 자신과 같은 초등학교생이 짓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가졌다. 다음으로 이미 있는 작품의 빈 칸을 채우는 활동을 하여, 4음보를 완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덜 느끼게 하였다. 가사를 지을 때는 한 줄이 네 칸으로 된 양식을 주어, 한 칸을 1음보가 되게 쓰게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음보를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채에 작품을 쓰고 그림으로 꾸미는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이 지은 작품이 시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의 의의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은 고전문학을 어렵게 여기는 학생들이 고전문학과 친해지게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고전문학 작품 중 가사, 한시 등은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생 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미 이 장르와 친근해져 있다면, 훨씬 편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 고전문학 교육은 고전문학과 관련된 지역의 인물·장소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뛰어난 고전문학 작품을 남긴 인물이 있고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보존되어 있는데, 알지 못해서 지나치는 경우가 생긴다. 예컨대, 정철이 담양의 식영정에서 가사문학을 남겼지만 해당 지역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다양한 고전문학을 가르치면서, 고전문학 관련 지역의 인물·장소에 담긴 의미를 알고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문학을 효과적으로 교육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도록 하는 것은 많은 고전문학 연구자·교수자들의 목표이다. 고전문학 교육 방안을 모색하여 수업에서 실행해보고, 실제 수업의 사례와 의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여 공유한다면, 더욱 좋은 고전문학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의 고전문학 교육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 중 고전문학 교육과 연계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다양한 장르·다양한 대상에 대한 고전문학 수업 사례가 공유되고 실제 수업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정희, 「문학교육에서 장르 지식의 위상과 활용 방안 - 가사 장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8, 377~415쪽.
DOI : 10.17313/jkorle.2018..41.377
- 김광순 외, 『국문학개론』, 새문사, 2012.
- 김미선,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 『용봉인문논총』 45,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5~31쪽.
UCI : G704-SER000011572.2014..45.006
- 김창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상 고전문학 고찰 - 특히 고시조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986, 61~80쪽.
- 박연호, 「고전문학의 교육 목적과 가사문학 교육 방안」, 『한국시가연구』 38, 한국시학회, 2015, 141~166쪽.
DOI : 10.32428/poetry.38..201505.141 UCI : G704-000454.2015.38..005
- 백순철, 「가사문학 교육의 방법론적 전망 - 지역성과 젠더를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39,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135~161쪽.
UCI : G704-001062.2017..39.004
- 변숙자, 「2015 개정 초·중등 국어 및 문학 교과서의 신화 제재 수용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5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3, 65~98쪽.
DOI : 10.17319/de.2023..52.65
- 염은열, 「고전문화교육과 ‘전통’ - 초등교육에서 ‘과거의 문학’이 지닌 의미」, 『초등교육연구』 11, 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1, 45~61쪽.
- 윤미경 글·성혜진 그림, 『멀치 블랙박스』, 고요아침, 2023.
- 이상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국어 교과서 연계성 연구 - 고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지원·류연석·고정희, 「신체활동을 통한 고전문학 경험 교육 연구 -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2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9, 97~140쪽.
DOI : 10.15734/koed..121.201912.97
- 임화섭, 「초등학교 국어과 고전 문학 작품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우영, 「시조의 장르 변용 교육 연구 - 초등 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16, 국어교과교육학회, 2009, 65~88쪽.

- 정한기·김용재, 「시조 교육의 양상과 과제 -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제재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72, 국어문학회, 2019, 597~632쪽.
DOI : 10.23016/klj.2019.72.72.597
- 정혜승,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전통문화 반영 양상」, 『교육문화연구』 24(6),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395~412쪽.
DOI : 10.24159/joec.2018.24.6.395
- 조성윤, 「초·중등 간 연계성 있는 고전 서사 교육을 위한 교과서 검토와 방법 제안」, 『국어문학』 72, 국어문학회, 2019, 633~663쪽.
DOI : 10.23016/klj.2019.72.72.633
- 조희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문학교육학』 68,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227~260쪽.
DOI : 10.37192/KLER.68.7
- 최한선, 「송가가사의 문화 콘텐츠화 방향」, 『한국시가문화연구』 33, 한국시가문화학회, 2014, 345~399쪽.
UCI : G704-001062.2014..33.007
- 황윤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문학 교과서의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연구」, 『문학교육학』 666,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171~221쪽.
DOI : 10.37192/KLER.66.6
- 황택주, 「국어 사용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고전문학 지도 방안 - 제7차 교육과정 5,6학년 ‘읽기’를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한국가사문학관(<http://www.gasa.go.kr/>) 검색일 : 2025. 1. 15.
- EBSi, 「한양에서부터 금강산까지 1 관동별곡(1) 1 10 CUT 고전시가」(<https://www.youtube.com/watch?v=AaUMvcZZnSs>) 검색일 : 2025. 1. 15.
- EBSi, 「한양에서부터 금강산까지 1 관동별곡(2) 1 10 CUT 고전시가」(<https://www.youtube.com/watch?v=WcmoFlCoo-M>) 검색일 : 2025. 1. 15.

| Abstract |

Case Study and Significance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the Korean Gasa Literary Museum's
Educational Program —

Kim, Mi-sun
Chonnam Univ. Lecturer.

This paper presents a case study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highlights its significance, aiming to contribute to the exploration of methods for teaching classical literature at the elementary level.

In Chapter 2, specific examples of classical literature lesson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nducted at the request of the Korean Gasa Literary Museum for 2023-2024 are presented. The lessons focused on Gasa literature, with the content tailored to the students' unfamiliarity with it by teaching only the “essential core” elements. To make the lessons “engaging,” various methods such as using songs, nursery rhymes, and animations were employed, and quizzes were used as a means to help students “remember” what they had learned. Additionally, students engaged in creating their own works, following a four-step process: 1) learning characteristics by reading the works aloud, 2) filling in blanks in existing works, 3) creating their own works, and 4) writing their work on a fan and decorating it with illustrations.

In Chapter 3, the significance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presented in two main points. First, such education helps students who find classical literature challenging to become familiar with and develop an affinity for it. Second, it encourages students to take an interest in regional figures and locations associated with classical literature.

Key words : classical literature, Gasa literature, education, lesson cases, elementary students

투고일 : 2025년 1월 17일 심사기간 : 2월 11일 - 2월 25일 게재확정일 : 2월 25일

www.kci.go.kr